

---

---

# 1970年代 우리나라의 賃金分布變化

朴 烜 求

.....▷ 目 次 ◁.....

- I. 序 論
- II. 資料의 性格과 制約
- III. 賃金分布의 變化
- IV. 賃金分布變化의 背景要因
- V. 要約 및 結論

## I. 序 論

本研究의 목적은 1970年代를 통해 우리나라의 賃金分布가 어떠한 변화를 보여 왔으며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진 背景要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이다.

産業化過程에서 전체 就業者 중 被傭者의 比重이 크게 늘어나고 賃金所得이 이들의 家

筆者：韓國開發研究院 研究委員

\* 本論文은 朴世逸 박사와 共著로 出刊豫定인 『韓國勞動市場의 賃金構造』의 一部를 발제한 것으로 本論文의 草稿를 검토해 준 金秀坤 박사께 감사드린다. 또한 勞動經濟學會 84年 1次 發表會에서 本論文의 草稿에 대한 좋은 코멘트를 해주신 會員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

口所得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賃金分布의 변화는 國民經濟의 所得分配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被傭者家口의 所得分配狀態와 個個勤勞者의 賃金分布는 被傭者 중 상당 부분이 單純勤勞者로서 家口의 補助所得源을 이루며 賃金所得 이외의 소득에 대한 분포가 賃金所得分布와는 상이할 수 있어 兩者間의 직접적인 連繫를 밝히기는 어려우나 賃金分布와 家口所得分布가 밀접한 관계를 지닌은 被傭者의 比重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더욱 명백해진다.

賃金分布에 대한 분석은 所得分配의 次元 외에도 賃金分布의 변화가 勞動市場의 構造變化를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나 또는 分布의 상태를 검토함으로써 勞動政策을 포함한 여러 가지 政策課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뜻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賃金分布變化에 대한 분석은 최근 李廷雨 博士의 연구를 제외하면, 家口所得分布의 推定過程에서 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分布를 推定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이루

어진 것을 찾아 볼 수 있다<sup>1)</sup>.

本研究에서는 1970년부터 勞動部에서 실시해 온 職種別 賃金實態調査의 個人別 賃金所得資料를 사용하여 10人 이상 雇傭事業體의 勤勞者 賃金分布가 1970年代를 통하여 어떠한 변화를 보여 왔는가를 몇 개의 推定值를 사용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資料의 制約上 전체 勤勞者의 賃金所得分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本研究를 통하여 적어도 都市近代部門에서의 勤勞者 賃金所得分布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sup>2)</sup>.

本研究의 構成은 第2章에서 本研究에 사용된 勞動部の 職種別 賃金實態調査의 성격과 同調査에서 제외되는 被傭者의 규모 및 성격을 검토하고 第3章에서는 賃金分布의 변화를 十分位 賃金分布, 「지니」係數, 對數分散度 등의 推定值를 推定함으로써 검토하였다. 第4章에서는 1970年代의 賃金分布의 변화가 이루어진 背景要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 보았고 第5章에서 本研究의 요약 및 결론을 서술하였다.

## II. 資料의 性格과 制約

本研究에서 우리나라의 賃金分布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基本統計資料는 勞動部에서 실시하고 있는 職種別 賃金實態調査의 結果報告書 및 調査의 原資料이다. 同調査는 勤勞者의 賃金, 勤勞時間 등 제반 勤勞條件을 職種 및 產業別로 파악함으로써 經濟施策과 企業의 賃金政策樹立을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1970년부터 매년 1회씩 실시되어 왔다. 同調査에서는 매년 3월 한 달 동안의 給與總額과 該當年 3월부터 1년을 소급하여 同期間에 지급된 특별 보너스, 勤勞者의 人的事項 및 기타 勤勞事項 등에 대하여 常傭勤勞者 10人 이상 事業體의 勤勞者를 대상으로 資料가 수집되고 있다<sup>3)</sup>.

1980年の 경우 同調査는 事業體 勞動實態調査를 母標本으로 常傭勤勞者 10人 이상 事業體 중 層化系統抽出方法에 의하여 추출된 3,865個의 標本事業體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國家 또는 地方行政機關, 軍, 警察, 國·公立 教育機關 從事者들은 調査對象에서 제외되어 있다<sup>4)</sup>. 調査對象勤勞者의 抽出方法에 있어서는 調査對象業體를 規模別로 나누어 100人 이하 事業體에서는 勤勞者 抽出率을 100%로, 100~299人 規模의 企業에서는 70%, 300~499人 規模에서는 50%, 500人 이상 規模에서는 20%로 하여 각 勤勞者의 人的事項 및 勤勞條件을 조사하고 있다.

위의 조사는 調査對象勤勞者 개개인의 學歷, 年齡, 經歷, 技術水準, 職種 등 個人屬性

1) Lee(1983), 朱鶴中(1979), Yoshioka(1978).

2) 위에서 都市近代部門의 概念은 전체 被傭者를 部門別로 나누어 農村의 農業從事者, 都市部門의 零細事業體勤勞者 등을 傳統部門의 勤勞者라 할 때, 이에 대한 對立概念이라 하겠다.

3) 職種別 賃金實態調査의 보다 具體的인 內容에 대해서는 同調査의 報告書 參照.

4) 常傭勤勞者에 대한 定義는 몇 가지 統計調査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되나 本研究의 基本資料로 쓰여진 職種別 賃金實態調査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個月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雇傭되어 있는 자 또는 臨時 및 日傭 勤勞者로 調査基準日 이전 3個月을 통산하여 45日 이상 事業體에 雇傭된 자를 말한다.

및 産業, 企業規模, 地域 등의 統計를 제공함으로써 賃金構造나 賃金隔差 등의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資料이다. 또한 年度別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조사의 基本骨格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면서 10年 이상 조사가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賃金構造의 時系列變化를 체계있게 분석하는 데에도 좋은 資料가 된다.

그러나 위의 資料가 지니는 큰 制約은 調査對象事業體가 民間部門의 常備勤勞者 10人 이상을 雇傭하는 事業體로 制限되어 있어, 賃金構造를 분석할 때 公共部門과 零細小規模企業의 勤勞者들이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職種別 賃金實態調査에서 제외되는 勤勞者가 總有給勤勞者 중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어느 정도인가는 <表 1>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 1980年 人口센서스의 결과에 의하면 調査時點에서 우리나라의 總就業者數는 1,268萬名이며 그중 給與를 받고 就業하고 있는 有給勤勞者의 수는 550萬名이다. 基準調査時點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1981년에 조사가 실시되었던 總事業體 統計調査에 의하면 農·漁家,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國際機關과 外國機關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전체 事業體에서 雇傭하고 있는 有給勤勞者數는 484萬名이

며 이 중 438萬名이 常備勤勞者이었다. 또한 勞動部의 事業體勞動實態調査에 의한 10人 이상 雇傭事業體의 有給勤勞者數는 1980年을 기준으로 297萬名, 常備勤勞者數는 275萬名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의 基礎資料로 사용된 조사의 對象勤勞者는 公共部門을 포함한 전체 有給勤勞者의 약 50%, 民間部門事業體 중 전체 有給勤勞者의 약 57%線이라 할 수 있다.

<表 2>에는 전체 經濟活動人口 중의 就業者數 및 有給勤勞者數와 事業體에 雇傭된 有給勤勞者數, 10人 이상 雇傭事業體의 常備勤勞者數를 각 産業別로 비교함으로써 本研究의 分析對象에서 제외된 有給勤勞者의 産業構成을 살펴 보았다.

또에 의하면 人口센서스에서 나타난 有給勤勞者數와 總事業體統計에서의 有給勤勞者數는 70餘萬名の 차이가 나는데, 人口센서스에서 파악되지 않고 있는 海外就業部門을 감안하면 이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이를 産業別로 살펴 보면 鑛工業 및 都·小賣 飲食 宿泊業에서는 두 資料의 수치가 거의 비슷하나 農林水産業과 運輸·倉庫·通信業의 경우는 각기 15萬名,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은 50萬名 정도로 人口센서스의 有給勤勞者數가 많다. 이는 非事業體로 간주되는 農漁家の 被傭人과 20餘萬을 넘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등

<表 1> 就業形態別 勤勞者 構成

	(단위: 名)			
	人口센서스 <sup>1)</sup>	總事業體 <sup>2)</sup>	5人 이상 事業體 <sup>3)</sup>	10人 이상 事業體 <sup>3)</sup>
就業者數	12,682,004	6,603,303	3,219,442	2,974,379
有給勤勞者數	5,506,627	4,839,190	3,166,040	2,971,660
常備勤勞者數	—	4,380,293	2,960,731	2,754,086

註: 1)의 基準時點은 1980年 11月 1日 2)는 1981年 7月 31日 3)은 1980年 3月 31日  
資料: 1) 經濟企劃院, 『人口 및 住宅센서스』, 1980.

2) —————, 『總事業體 統計調査報告書』, 1981.

3) 勞動部, 『事業體 勞動實態 調査報告書』, 1980.

이 總事業體統計에서 제외되는 데에도 원인이 있으나, 人口센서스가 家口訪問에 의한 家口調査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被調査者의 産業區分에 대한 理解不足에서도 産業別 就業者推計의 不正確性이 기인된다고 하겠다. 한편 建設業部門에서는 오히려 總事業體統計 쪽이 15萬名 정도 많게 나타났는데 이는 建設業部門의 海外 就業者가 人口센서스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事業體 전체의 有給勤勞者數와 10人 이상 雇傭事業體의 常傭勤勞者를 비교하여 本研究의 分析對象에서 제외된 有給勤勞者의 大宗을 살펴 보면, 그 대부분이 製造業, 建設業, 都·小賣 飲食 宿泊業과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의 零細事業體에 종사하고 있는 勤勞者 들임을 알 수 있다. 이들 勤勞者들은 製造業의 경우 規模의 零細性에 비추어 10人 이상 雇傭事業體 勤勞者들에 비해 賃金水準을 비롯한 각종 勤勞條件이 劣勢에 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의 경우 分析對象에서 제외된 有給勤勞者의 구성은 다양하여 各급 國·公立 學校 教員 및 從事者

와 각종 社會團體 從事者가 한 부분을 이루고 理·美容業, 修繕業 등 零細規模의 個人 및 家事서비스業 從事者들이 다른 한 부분을 이루고 있어 이들 除外勤勞者들의 賃金 및 勤勞條件의 상대적 위치를 단정적으로 판가름하기는 어렵다. 都·小賣 飲食 宿泊業의 경우 우리나라의 流通構造面이나 同産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의 事業體는 대부분 零細規模로 運營되고 있어 除外勤勞者의 대부분이 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 10人 이상 事業體 勤勞者들에 뒤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1980年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總有給勤勞者 중에서 職種別 賃金實態調査에서 제외된 有給勤勞者의 크기는 약 250萬名에 달하며 이들은 크게 나누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國·公立 教育機關, 社會團體 등 公共部門의 「화이트칼라」 勤勞者들과 零細製造業體 및 零細서비스業 從事者, 農·漁家 등 非事業體의 被傭人 등 勤勞條件이 상대적으로 劣位에 있는 勤勞者들, 그리고 建設業 등의 海外就業勤勞者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공공부문의 有給勤勞者들의 賃金水準은 全勤

〈表 2〉 産業別 事業體勤勞者 構成

(단위 : 名, %)

	人口센서스 중 就業者數 <sup>1)</sup>	人口센서스 중 有給勤勞 者數 <sup>1)</sup>	總 事 業 體 有給勤勞者數 <sup>2)</sup> (A)	10人 이상 事 業體 常傭勤 勞者數 <sup>3)</sup> (B)	(A)-(B)
全 產 業	12,682,004	5,506,627	4,839,190	2,715,515	2,123,675(100.0)
農 林 漁 業	4,794,696	170,113	3,522	10,277	3,245( 0.2)
鑛 業	90,624	85,330	81,072	66,342	14,730( 0.7)
製 造 業	2,797,030	2,385,772	2,325,231	1,830,179	495,052( 23.3)
電氣·水道·가스	36,493	36,493	24,538	21,616	2,922( 0.1)
建 設 業	664,419	419,417	561,266	93,927	467,339( 22.0)
都小賣·飲食·宿泊	2,058,591	583,387	573,544	115,102	458,442( 21.6)
運輸·倉庫·通信	551,405	457,431	304,549	250,794	53,755( 2.5)
金融·保險·不動產	285,744	215,340	305,296	149,825	155,471( 7.3)
社會 및 個人서비스	1,402,629	1,153,251	650,172	177,453	472,719( 22.3)

註 : 〈表 1〉과 同一

資料 : 〈表 1〉과 同一

勞者의 平均水準 또는 그 이상을 점하고 있으나 이들이 除外勤勞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이다. 이에 반해 調査對象에서 제외된 餘他 勤勞者의 대부분은 低賃階層의 勤者勞들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有給勤勞者 전체의 賃金の 分布度는 本研究의 결과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Ⅲ. 賃金分布의 變化

#### 1. 賃金分布의 變化推定

本章에서는 1972년부터 隔年으로 各年度의 職種別 賃金實態調査資料에 수록된 勤勞者의 일부를 抽出하여 이들 勤勞者의 月賃金總額의 分布를 몇 개의 所得分布 推定值를 사용하여 검토함으로써 1970年代의 賃金分布變化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賃金分布變化의 검토에 앞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賃金分布變化에 대한 既存資料를 살펴 보면 朱鶴中 博士의 所得分配研究 중에서 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分配變化에 대한 分析과 李廷雨 博士의 賃金分布變化에 대한 分析資料를 찾아 볼 수 있다.

朱鶴中 博士의 研究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所得分配를 1970, 1976 및 1982年의 세 時點에서 검토할 때 所得分配가 1970年代 前半에는 악화되었다가 後半에 다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 非農部門의 被傭者家口의 所得分配, 즉 賃金所得이 主所得源을 이루는 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分配도 같은 양상으로 변화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sup>5)</sup>.

朱鶴中 博士의 所得分布度 推定에 있어 非農部門의 被傭者家口의 所得分布에 대한 不平等度는 該當年度의 都市家計調査結果를 토대로 하여 推定되었기 때문에 家口當 被傭者數가 다르고 都市家計調査의 標本抽出方法에 있어 一部年度에는 所得上限線이 적용되고 있어 전체 有給勤勞者의 賃金分布가 都市家計調査에 나타난 家口所得의 分布로 적절히 대표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sup>6)</sup>. 따라서 위의 결과에 의해서 賃金分布變化를 판단하는 데는 큰 제약이 따른다.

이와는 달리 최근 李廷雨 博士의 研究에서는 1967~81年 사이의 賃金所得分布를 職種別 賃金實態調査의 資料를 이용하여 推定하였다<sup>7)</sup>. 李博士의 研究에서는 1971年의 職種別 賃金實態調査의 個人別 賃金資料와 其他年度에서의 職種別 賃金實態調査報告書에 나타난 賃金階層別 勤勞者分布를 사용하여 1970年代의 賃金所得分布를 推定하였으며, 推定結果에 의하면 1970年代 全期間을 통하여 賃金所得의 不平等度는 점차 축소되어 왔으며 특히 縮小速度는 1970年代 後半에 더욱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위의 推定에서는 資料使用의 제약으로 1971年을 제외하고는 勤勞者 個人別 賃金水準에 대한 資料 대신에 賃金階層別 勤勞者數를 사용하여 推定過程에서 나타나는 몇

5) 朱博士의 分析結果에 의하면 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에 대한 「지니」係數는 1970, 1976, 1982年에 각각 0.304, 0.355, 0.309로 1982年의 都市勤勞者家口 所得分配는 1970年의 水準으로 다시 환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朱鶴中·尹珠賢(1984).

6) 所得上限線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資料補充作業이 있었으나 어느 정도의 任意性은 배제하기 어려움. 補充作業의 내용은 朱鶴中(1979) 참조.

7) Lee(1983).

8) 李廷雨 博士의 推定結果에 따르면 1970年에서 1981年 사이에 賃金所得의 「지니」係數는 0.39에서 0.34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지 假定에 따라 賃金所得分布의 變化樣相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 있으나 결론적으로 1970年代를 통해 賃金所得의 분포가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本研究에서는 職種別 賃金實態調査의 原資料에 나타난 勤勞者 개개인의 賃金所得資料를 사용하여 1972~82年の 期間에 걸쳐 隔年으로 各年度の 賃金所得分布를 推定하였다. 本研究에서는 賃金所得으로 各年度の 3月の 總賃金, 즉 定額給與, 超過給與 및 3月 이전 1年間の 보너스 支給額의 月平均額의 合計額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賃金支拂體系가 매우 복잡하다 함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賃金所得의 分布를 推定함에 있어 모든 勤勞者들에서 勤勞所得의 總합이 누락없이 산출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企業에 따라 通勤, 食事, 寄宿金 運營 등에 있어 福利厚生費가 現金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間接費의 형태로 企業에서 직접 福利厚生施設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企業單位에서의 1人當 勞務費總額이 유사하더라도 勤勞者에게 지불되는 賃金總額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또한 高所得者들에게는 業務推進名目の 生活補助手當이 상당히 지급되고 있는 경우가 大企業을 중심으로 드물지 않다. 職種別 賃金實態調査에 나타난 個人別 賃金水準이 높아질수록 過小評價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過小評價의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워 本研究에서는 資料上에 나타난 賃金總額으로 賃金所得의 分布를 推定하였다.

실제로 推定에 있어서는 勞動部의 各年度 調査資料에서 3萬名 내외의 勤勞者를 각 項目別 構成을 고려해 比例抽出하여 얻은 小標本을 分析對象으로 하였으며, 賃金所得分布度의

〈表 3〉 賃金階層別 賃金分布와 賃金分布度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 十分位	2.14	2.37	2.91	3.00	3.16	3.12
2 十分位	3.58	3.79	3.96	4.01	4.21	4.14
3 十分位	4.57	4.70	4.69	4.73	4.97	4.91
4 十分位	5.56	5.58	5.44	5.51	5.81	5.75
5 十分位	6.76	6.67	6.39	6.48	6.89	6.87
6 十分位	8.28	8.03	7.68	7.88	8.28	8.40
7 十分位	10.23	10.00	9.52	9.85	10.02	10.30
8 十分位	12.83	12.61	12.12	12.49	12.42	12.67
9 十分位	16.59	16.44	16.46	16.53	16.11	16.05
10 十分位	29.46	29.80	30.83	29.53	28.12	27.80
下 位 40% (A)	15.85	16.44	17.00	17.25	18.15	17.92
上 位 20% (B)	46.05	46.24	47.29	46.06	44.23	43.85
十分位分配率 (A/B)	0.344	0.355	0.359	0.374	0.410	0.409
「지니」 係數	0.4022	0.3989	0.3985	0.3878	0.3673	0.3675
變異 係數	0.866	0.938	0.911	0.847	0.804	0.824
對數 分散	0.515	0.487	0.470	0.441	0.399	0.403
標本 勤勞者數 (名)	30,441	27,486	27,969	40,432	25,705	37,817

資料: 勞動部, 「職種別 賃金데이터프」, 各年度.

推定値로는 「지니」係數(Gini coefficient), 變異係數(coefficient of variation), 對數分散度(log variance), 十分位分配率 등을 사용하였다<sup>9)</sup>.

〈表 3〉에는 各年度 賃金所得의 十分位의 分位別 賃金比重과 위의 4가지 賃金所得分布度가 提示되어 있다. 賃金分布度の 변화를 먼저 「지니」係數를 통해 살펴 보면 1972~76年 사이에는 「지니」係數가 減少趨勢를 보이나 그 減少幅은 극히 미미하여 어떤 變化趨勢를 뚜렷하게 判定하기 어려운 반면에 1976~80年 사이에는 뚜렷한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80~82年 사이에 「지니」係數는 큰 變化를 나타내지 않는다. 變異係數는 1974年의 값이 1972年의 값보다 크나 1974年 이후로는 계속하여 감소하는 趨勢를 보이며, 對數分散度는 1970年代 전체를 통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賃金階層 十分位의 各 分位別 賃金比重에서 볼 때 下位 40%의 賃金分配率은 1970年代 전반을 통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1980年代 初盤에는 增加勢가 멈추고 있으며, 上位 20%의 賃金分配率의 경우 1972~76年 사이에는 계속 增加趨勢를 보이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경향으로 十分位分配率, 즉 下位 40% 勤勞者階層의 賃金分配率의 上位 20% 勤勞者階層 賃金分配率에 대한 比率은 1972~76年 사이에는 미미한 變化를 나타내나 1976年 이후로는 뚜렷하게 증가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80年代 初盤에 들어서 十分位分配率은 큰 變化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推定値들의 趨勢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賃金所得分布는 1970年代 前半에는

어떤 뚜렷한 趨勢를 보이지 않으나 1970年代 後半에는 뚜렷하게 不平等度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縮小趨勢가 1980年代 初盤에 들어서 멈추어진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는 1972~76年 사이에는 分布度の 推定値들이 서로 상이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니」係數가 큰 變化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上位 20%階層의 賃金所得比重도 큰 變化를 나타내지 않는 등 賃金分布의 變化에 대해 어떤 특정한 趨勢를 찾아 보기 어려우나 1970年代 後半에는 모든 指數들이 공통적으로 뚜렷한 減少趨勢를 보이다가 1980年代 初盤에 들어 큰 變化를 나타내지 않은 결과 때문이다.

## 2. 賃金階層別 賃金水準의 變化

앞 節에서 나타난 賃金階層別 賃金分布를 사용하여 各 十分位에서의 平均賃金の 全體平均賃金에 대한 百分比를 各年度別로 推定한 結果가 〈表 4〉에 제시되어 있다.

위의 표에 의하면 第7十分位의 平均賃金은 전체 平均賃金과 근사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의 相對賃金水準은 1970年代 中盤까지 악화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 70年代 前盤의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各 十分位 中에서 1970年代를 통해 相對賃金水準이 가장 높아진 分位는 最下 第1十分位로서 相對賃金指數가 1972~82年 사이에 1.5배 증가를 보였고 第2十分位, 第3十分位에서의 相對賃金指數도 同期間 동안을 통하여 꾸준한 增加勢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資料에 나타난 結果에 있어 특별히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第1十分位의 相對賃金指數가 1974~76年 사이에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그

9) 各 分布度 測定値의 測定方法과 성격에 대해서는 朱鶴中(1982) 참조.

후로는 아주 완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第1十分位 勤勞者들은 1982年 기준으로 平均 76,000원의 月賃金を 받고 있는 最低賃金階層으로 주로 年少女性勤勞者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들의 相對的 賃金水準이 下厚上薄 賃金調整原則에 의해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通念임에 반해 資料에 나타난 결과는 이들의 相對賃金水準이 어느 特定時點, 즉 1974~76年 사이의 일시적인 개선이며 그 이후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특히 第2次 오일 파동 이후의 심한 인플레이하에서 政府는 下厚上薄原則에 의해 賃금이 조정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였던 바이나, 실제로 第2次 오일 파동 이후의 인플레이하에서도 下厚上薄의인 賃金調整은 결과적으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第1十分位 勤勞者의 相對賃金指數가 1974~76年 사이에 커다란 증가를 보인 것

을 설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1970年代 中盤에 강력히 시행되었던 低賃金解消施策을 들 수 있다. 政府는 부당한 低賃金의 解消策으로 1975년에는 低賃金基準을 月 1萬원, 1975년에는 月 2萬원으로 급격히 상승시키는 등 실제로 最低賃金制의 制度的 導入과 유사한 시책을 펼쳤고, 이러한 시책이 1975~76年の 期間에 특히 강력하게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위의 변화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sup>10)</sup>.

위의 검토에서 얻어질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은 低賃勤勞者에 대한 賃金改善이 下厚上薄 賃金調整의 勸告 등 미온적인 시책으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며 제도적으로 最低賃金制의 도입을 통해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低賃階層인 第1, 2, 3十分位 勤勞者들의 相對賃金指數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데 반하여 高賃階層 第9, 10十分位 勤勞者의 相對賃金指

〈表 4〉 十分位 平均賃金の 全平均賃金에 대한 比率

(단위 : %)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第1十分位	21.4	23.8	29.1	30.0	31.5	31.2
第2十分位	35.8	37.9	39.6	40.1	42.1	41.4
第3十分位	45.7	47.0	46.9	47.3	49.7	49.1
第4十分位	55.6	55.9	54.4	55.1	58.0	57.4
第5十分位	67.7	66.7	63.9	64.9	68.9	68.7
第6十分位	82.9	80.3	76.8	78.8	82.8	83.9
第7十分位	102.4	100.1	95.2	98.5	100.1	103.0
第8十分位	128.3	126.2	121.2	125.0	124.2	126.6
第9十分位	165.9	164.4	164.6	165.3	161.0	160.5
第10十分位	294.8	298.1	308.4	295.4	281.1	277.8
平均 值(원)	25,355	40,248	83,520	107,378	170,526	243,75

資料 : 勞働部, 「職種別 賃金레이프」, 各年度.

10) 1974~75년에 걸쳐서는 景氣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低賃 青少年勤勞者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 相對賃金水準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數는 1972~82年 사이에 눈에 띄게 下向調整 되었다. 특히 最高位 賃金階層인 第10十分位 勤勞者의 相對賃金指數의 下向調整幅이 크나 同階層에서의 相對賃金指數는 1972~76年 사이에는 뚜렷한 上昇勢를 보이다가 그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1972~76年 사이에 學歷間, 職種間 賃金隔差가 크게 확대되었던 趨勢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中間水準의 賃金階層인 第4~8十分位 勤勞者들의 相對賃金指數의 變化過程에서 나타나 는 특징은 이들 階層에서의 相對賃金指數가 1972~76年 사이에는 下向趨勢을 보이다가 그 이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階層 勤勞者들의 構成範圍는 큰 폭이긴 하지만 크게 구분해서 高卒 이하의 男子勤勞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판단할 수 있다<sup>11)</sup>.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들 中間階層에서의 相對賃金指數의 變化過程을 1970年代 中盤까지 學歷間, 職種間的 賃金隔差가 확대되다가 그 이후에 점차 축소되었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N. 賃金分布變化의 背景要因

前章에서 1972~82年 사이의 우리나라의 賃金分布變化過程을 살펴 볼 때 賃金分布度는

i) 1972~76年 사이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11) 1980年을 기준으로 할 때 大卒 初賃의 平均水準이 第 8十分位の 賃金水準과 유사함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판단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음.

ii) 1976~80年 사이에는 뚜렷하게 不平等度가 감소하였으며,

iii) 1980年代에 들어서는 다시 停滯하는 현상을 나타낸 것으로 판명되었다.

本章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 背景要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背景要因의 검토에 있어 그 主眼點을 첫째, 1970年代 前半에 學歷間, 職種間에 賃金隔差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賃金分布의 不平等度는 뚜렷한 變化趨勢를 보이지 않았던 배경이 무엇인가. 둘째, 1976~80年 사이에 賃金分布의 不平等度가 축소된 배경은 무엇인가에 두고자 한다.

1970年代 前半에 學歷間, 職種間, 性別 賃金隔差가 확대되었음은 <表 5>를 통해서 알 수 있다. 最上位 賃金職種인 行政管理職 賃金の 平均賃金에 대한 比率과 大卒者 平均賃金の 전체 平均賃金에 대한 比率은 1976年을 기점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男子 對 女子의 平均賃金比率은 1980年까지 계속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勤勞者集團 사이의 賃金隔差, 특히 學歷別, 職種別, 性別 隔差가 1970年代 中盤 이후까지 계속 확대되는 趨勢를 보임에 반해서 전체 勤勞者의 賃金分布가 1970年代 前半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은 일견 상반된 현상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각 集團內에서의 賃金分布, 즉 學歷內部, 職種內部, 男女內部 등에서의 賃金分布(within group wage inequality)가 勤勞者集團 사이의 賃金隔差의 擴大趨勢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1970年代 前·後半을 통해 계속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表 6>에서는 1972, 76, 82年の 資料를 사

용하여 性別, 學歷別, 職種別로 전체 勤勞者를 구분하여 각 部門內의 賃金分布를 推定한 結果가 제시되어 있다. 위에서 性別은 전체 勤勞者를 男女로, 學歷區分은 國卒, 中卒, 高卒, 大卒의 4區分으로, 職種別은 行政管理職, 事務職 및 專門技術職을 事務關聯職으로 구분하고 이와 대비하여 生産職을 추가하여 두 職種群간을 비교하였다. 위의 8個 勤勞者集團의 內部賃金分布를 살펴 보면, 1972~76年 사이

에 男女勤勞者, 高卒勤勞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集團에서 部門內 賃金分布의 不平等度가 축소되었으며 1976~80年 사이에는 8個 集團 모두에서 部門內 賃金分布의 不平等度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문별 賃金分布가 전반적으로 縮小傾向을 보이는 것은 勞動市場이 확대됨에 따라 賃金を 비롯한 勞動市場情報流通이 勤勞者 사이에, 그리고 企業間에 보다 원활하게

〈表 5〉 賃金隔差의 變化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行政管理職/平均賃金	3.04	2.78	3.44	3.25	2.83	2.60
大卒者/平均賃金	2.29	2.34	2.61	2.59	2.39	2.28
男子/女子	2.22	2.22	2.28	2.30	2.33	2.27

註: 平均賃金은 보너스의 月平均을 포함한 總月給與額.  
資料: 勞動部, 『職種別 賃金實態調査報告書』, 各年度.

〈表 6〉 勤勞者群 內部 賃金分布(within group inequality)

			1972	1976	1980	1982
性別	男	變異係數	0.7527	0.8024	0.6984	0.6887
		지니係數	0.3581	0.3701	0.3280	0.3147
		對數分散	0.4274	0.4520	0.3393	0.3190
	女	變異係數	0.6501	0.6647	0.5418	0.7157
		지니係數	0.2926	0.2499	0.2316	0.2323
		對數分散	0.2619	0.1844	0.1587	0.1543
學歷別	國卒	變異係數	0.7322	0.6915	0.5948	0.6940
		지니係數	0.3548	0.3040	0.2920	0.3044
		對數分散	0.3915	0.2734	0.2496	0.2710
	中卒	變異係數	0.6960	0.6804	0.6043	0.6774
		지니係數	0.3423	0.3073	0.2964	0.3050
		對數分散	0.3717	0.2858	0.2614	0.2732
	高卒	變異係數	0.6348	0.6987	0.5971	0.6552
		지니係數	0.3095	0.3216	0.2970	0.3009
		對數分散	0.3134	0.3442	0.2793	0.2894
	大卒	變異係數	0.6213	0.5849	0.5592	0.5559
		지니係數	0.3168	0.2879	0.2736	0.2672
		對數分散	0.2949	0.2927	0.2253	0.2269
職種別	「화이트칼라」	變異係數	0.7904	0.7511	0.7106	0.7219
		지니係數	0.3939	0.3664	0.3451	0.3437
		對數分散	0.5380	0.4907	0.3827	0.3838
	「블루칼라」	變異係數	0.6983	0.7094	0.5885	0.6644
		지니係數	0.3522	0.3212	0.2997	0.3081
		對數分散	0.4108	0.3026	0.2712	0.2871

註: 1) 職種區分 중 「화이트칼라」에는 專門技術職, 行政管理職, 事務職이 포함되어 있으며 「블루칼라」는 生産職을 가리킨다.  
資料: 勞動部, 「職種別 賃金데이터프」, 各年度.

되고, 企業經營의 近代化를 통해 賃金決定方式과 雇傭慣行이 점차 定型化됨에 따라 勞動市場의 움직임이 同一勞動에 대한 同一賃金의 原則으로 보다 접근하게 됨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1972~76年 사이에 男子勤勞者 內部的 賃金不平等度가 확대된 이유는 이 기간 중에 나타났던 學歷間, 職種間 賃金隔差의 擴大現象이 주로 男子勤勞者들 사이에 나타난 현상임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同期間 중 高卒者의 賃金不平等度가 확대되는 현상은 이 기간 중에 高學歷 중심의 上位職種의 수요가 확대되고 供給不足이 심해짐에 따라 勞動市場의 일부 高卒者들이 高賃上位職種으로 上方移動함에 기인하는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各年度의 전체 勤勞者 賃金の 對數分散度를 性別, 學歷別로 구분하여 전체 勤勞者에 대한 對數分散度를 部門間 差異(between group difference)와 部門內 差異(within group difference)로 分解하여 部門內 賃金差와 部門間 賃金差가 전체 賃金分布를 설명하는 比重을 추정하였다<sup>12)</sup>.

<表 7>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學歷別이나 性別 分解에서 部門間 隔差에 의해 설명되는 分散度の 比重은 약 30% 내외로서 部門間的 隔差보다는 部門內的 分布가 전체 賃金分布를 설명하는 데 보다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7> 對數分散度の 分解

	1972	1976	1982
全體分散度	0.515	0.470	0.403
性別			
男	0.417	0.452	0.319
女	0.262	0.184	0.154
部門內 (%)	0.365 (70.9)	0.347 (73.8)	0.253 (62.8)
部門間 (%)	0.150 (29.1)	0.123 (26.2)	0.150 (37.2)
學歷別			
國卒이하	0.392	0.273	0.271
中卒	0.372	0.286	0.273
高卒	0.313	0.344	0.289
大卒이상	0.295	0.293	0.227
部門內 (%)	0.358 (69.5)	0.299 (63.6)	0.273 (67.8)
部門間 (%)	0.157 (30.5)	0.171 (36.4)	0.130 (32.2)

本章에서의 두 번째 과제는 1970年代 後半부터 賃金分散의 不平等度가 크게 축소된 背景要因에 대한 검토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을 勞動市場 需給上的 與件變化, 즉 市場的 要因과 勞動市場의 制度的 要因으로 나누어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1970年代 後半부터 賃金分散度가 축소하는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勞動供給側面에서의 변화라고 생각된다. 供給側面에서 볼 때 첫째로 中·高等學校의 進學率의 증가는 低賃金 勤勞者 供給源으로서의 國卒·中卒 靑少年 勞動力의 공급을 감소시켰다. 中學進學率은 1970年代 後半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1982년에는 약 97%의 수준에 달하였고 高校 進學率 또한 크게 높아져 1970年代 後半에는 80% 수준을 넘어섰다. 朴世逸 博士의 研究에 따르면 中學校 卒業生의 크기는 1970年代 전반을 통해 계속 늘어 왔으나 中學卒業 新規流入 勞動力의 크기는 1974年을 頂點으로 계속

12) 예를 들어 전체 勤勞者의 對數分散度를 男女群으로 나누어 分解하면 男女 각각의 對數分散度の 加重平均 部門으로 나타나는 부분과 기타 부분으로 分解되며, 각각의 對數分散度の 加重平均部門을 部門內 差異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으로, 기타 부분을 部門間 差異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으로 간주함. 구체적인 計算過程은 Szal and Robinson(1977)이나 朱鶴中(1982) 참조.

줄어들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sup>13)</sup>.

이와 같이 1970年代 後半을 통해 低學歷 年少勞動力의 新規供給이 서서히 감소되는 반면, 好景氣 속에서 勞動力需要는 계속 증대됨으로 해서 低賃勤勞者의 相對賃金水準이 상승하는 결과를 빚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 둘째로 1976~78年 사이의 지속적인 經濟成長과 海外建設景氣의 확대 등으로 부분적인 人力供給不足現象은 특히 男子 技能工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도 70年代 後半의 勞動市場의 특성으로 理解될 수 있다. 앞의 <表 4>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1976~80年 사이에는 第9, 第10十分位의 相對賃金水準이 하락한 반면 그 외의 賃金階層에서의 相對賃金水準은 一律적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지적된 年少勞動力의 供給減少로 인한 低賃金階層(第1, 2, 3十分位)에서의 相對賃金指數上昇, 男子技能人力을 중심으로 한 部分的 供給不足과 이에 따라 나타나는 波及效果에 의한 中間賃金階層(第4, 5, 6, 7十分位)에서의 相對賃金上昇에 연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賃金分布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장기적인 構造變化로는 勤勞者 學歷水準 및 學歷別 構成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의 研究結果로나 일반적인 판단에 의해 볼 때 教育水準과 所得不平等度는 負의 關係를 지닌다고 하겠다<sup>14)</sup>.

우리나라 勤勞者의 學歷構成 및 學歷水準의 변화에 대해서는 人口센서스 등의 資料를 이

용할 수 있겠으나 本研究의 資料로 사용된 職種別 賃金實態調査의 對象勤勞者들의 學歷構成의 변화를 보면 <表 8>과 같다. 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72~82年 사이에 전체 勤勞者 중에서 高卒者의 比重은 22%에서 33%로 크게 증가한 반면, 中卒 이하 勤勞者의 比重은 68%에서 53%로 감소하였으며, 大卒勤勞者의 比重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勤勞者의 平均學歷水準이 上昇하고 學歷水準의 不平等度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個人的 學歷水準이 賃金水準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다른 要因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勞動市場構造에서 學歷水準의 향상과 學歷水準의 不平等度의 축소는 장기적으로 賃金不平等度를 축소시키는 데 큰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表 8> 職種別 賃金調査對象勤勞者의 學歷構成 (단위: %)

	1972	1976	1982
全 體	100.0	100.0	100.0
國 卒	36.6	30.0	} 53.4
中 卒	31.0	32.8	
高 卒	22.4	25.3	
專門大卒	—	1.8	3.0
大卒 이상	10.0	9.8	10.6
男 子	65.8	60.0	62.8
國 卒	19.0	12.3	} 27.6
中 卒	19.8	18.4	
高 卒	17.8	18.7	
專門大卒	—	1.5	2.4
大卒 이상	9.3	9.0	9.7
女 子	34.2	39.9	37.2
國 卒	17.6	17.6	} 25.7
中 卒	11.3	14.4	
高 卒	4.6	6.6	
專門大卒	—	0.3	0.5
大卒 이상	0.7	0.7	0.9

資料: 勞動部, 『職種別 賃金實態調査報告書』, 各年度.

13) 朴世逸(1983).

14) 두 變數의 관계에 대해서는 Adelman and Morris(1973), Chiswick and Mincer(1972), Lydall(1968) 등이 여러 가지 理論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다 명확한 명제로서 教育水準의 不平等度가 낮아지면 所得不平等度가 낮아진다는 점은 타당한 推理라고 본다.

賃金分布의 변화와 관계되는 經濟變數로는 인플레이션을 들 수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狀況에서 生計費保障이 賃金調整의 主要課題로 대두되기 때문에 低賃金階層의 賃금이 다른 階層의 賃金水準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빨리 상승되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압박 내지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70年代 전반을 통하여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하에 있었음을 주지의 사실이나, 인플레이션이 특히 심하였던 1974~75, 1980~81년의 시기에 실제로 어떻게 低賃金階層의 賃金水準이 變化했는가는 <表 4>에서 볼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1980~81년의 인플레이션 期間에는 下厚上薄의 賃金調整이 실제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1974~76년의 階層別 相對賃金水準을 비교하면 低賃金階層(第1, 第2十分位)의 相對賃金水準이 상승한 반면, 다른 階層의 相對賃金水準은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기할 점은 同期間에 最高賃金階層(第9, 第10十分位)의 相對賃金指數도 상승한 결과를 보여 同期間에도 인플레이션 하에서 사회적인 압박으로 下厚上薄式 賃金調整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勞働市場의 構造變化와 賃金構造 및 賃金分布의 변화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또 하나의 주요 要因은 農家人口의 都市流入, 서비스産業은 포함하는 都市傳統部門(urban traditional sector)과 都市近代部門과의 相互關係이다. 1970年代의 農家人口의 變化趨勢를 검토하여 보면 農家人口는 1972, 19

73년에 頂點을 이루어 그 후 계속 감소하여 왔으며 특히 1970年代 후반에 감소 속도가 높았다. 1975~79年 사이의 農家人口의 絕對數는 약 250萬名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sup>15)</sup>.

이와 같은 현상은 都市部門에서의 人口增加를 감안할 때 同部門에서의 勞動力供給의 급속한 증가를 의미한다. 참고로 1976~80年 사이에 10人 이상 雇傭事業體에서의 勤勞者數는 202萬名에서 297萬名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과 10人 이상 雇傭事業體의 低賃勤勞者의 相對賃金水準이 1970年代 후반에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는 사실은 첫째, 個人서비스業, 零細製造業 등의 都市傳統部門에서의 勞動力 흡수가 상당히 컸다는 점과 둘째, 이들 都市傳統部門에서의 賃金を 포함한 勤勞條件이 10人 이상 雇傭事業體를 중심으로 하는 都市近代部門에서의 勤勞條件과 상당히 경쟁적이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판단은 離農人口가 都市에서 어떠한 就業形態를 취하고 있으며 都市傳統部門에서의 就業構造와 賃金構造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이들이 都市近代部門의 雇傭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資料分析을 토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假說에 불과하다<sup>16)</sup>. 그러나 위에서 제기된 문제는 本研究에서의 分析對象인 10인 이상 雇傭事業體를 중심으로 하는 都市近代部門의 雇傭 및 賃金構造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本研究에서는 단지 하나의 假說로서 1970年代 後半의 급속한 離農人口의 都市流入이 상당부분 都市傳統部門으로 흡수되어 都市近代部門의 勞動力需要解決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이러한 현

15) 農家人口의 變化趨勢에 대해서는 拙稿(1982) 참조.

16) 都市傳統部門에 대한 포괄적인 實證分析研究는 지금까지 뚜렷하게 찾아 볼 수 없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研究의 필요성이 큼.

상이 都市近代部門의 低賃階層의 相對賃金水準이 상승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賃金分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制度的 要因으로서 最低賃金制 등의 賃金政策과 勞動組合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最低賃金制가 法的 根據를 갖고 있지 않으나 앞에서 論議된 바와 같이 1970年代中盤부터 行政指導로서 低賃解消施策을 추진하여 왔다. 施策推進의 결과는 行政力이 어느 정도의 強度를 띠고 추진되었는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最低賃金階層의 相對賃金指數의 변화로 볼 때 1974~76年 사이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나 그 이외의 기간에도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물론 低賃金政策이 最低賃金制 등의 立法措置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制度施行에 있어 最低賃金의 水準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가에 따라 전체 賃金構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짐은 명백하나 低賃政策이 一貫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行政指導를 통해서보다는 立法措置에 의한 방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勞動組合은 1970年代를 통해 커다란 양적 확대를 이루어 왔다. 勞動組合의 組合員數는 1970年代初에 50萬 미만이었으나 1979년에는 100萬을 넘어섰고 組織率도 20% 이상으로 提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勞使間에 交渉力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한 형편이며, 産業別로 勞動組合이 賃金を 포함한 勤勞條件의 개선에 미친 영향이 다르나 전반적으로 勤勞組合이 1970年代의 賃金構造改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앞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企業의 雇傭慣行이 점차 定型化하고 勞動市場情報의 流通이 보다 원활해지게 됨에 따라 勞動市場이 보다 경쟁적으로 운용되게 되었다는 점은 賃金分布度의 전반적인 축소에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체 賃金分布度を 설명하는 데 큰 比重을 지니는 部門內 賃金分布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V. 要約 및 結論

本論文에서는 1970年代에 걸쳐 우리나라의 賃金分布가 어떠한 변화를 보였으며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背景要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本研究에서는 勞動部의 職種別 賃金實態調査에 나타난 個人別 賃金資料를 사용하여 1972~82年 사이의 年度別 賃金分布를 「지니」係數, 對數分散度, 十分位分配率 등의 몇 가지 分布推定値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分析에 사용된 資料는 常傭勤勞者 10人 이상 雇傭事業體의 勤勞者에 한하여 수집된 관계로 우리나라의 전체 被傭者의 賃金分布를 검토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고 本論文에 나타난 賃金分散度는 전체 勤勞者의 賃金分散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過小 推定될 가능성이 높다. 本論文의 資料分析을 통해 나타난 賃金分布 變化에 대한 몇 가지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1972~82年 사이의 각종 賃金分布度의 推定値의 변화를 검토하면 우리나라의 賃金分布는 1972~76年 사이에는 큰 변화를 보

이지 않았고, 1976~80年 사이에는 뚜렷하게 不平等度가 감소하였으며, 1980年代에 들어서 는 다시 정체하는 현상을 나타낸 것으로 판명 되었다. 賃金分布의 「지니」係數는 1972, 1976, 1980, 1982년에 각각 0.402, 0.399, 0.367, 0.368로 나타났다.

둘째, 賃金階層別로 相對的 賃金水準의 變化를 살펴 보면, 相對賃金指數, 즉 階層別 平均賃金の 全體平均賃金에 대한 比率은 1972~82年 사이에 最低賃金階層인 第1十分位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低賃階層인 第2, 第3十分位の 相對位置도 分析期間 중에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또한 高賃階層인 第10十分位の 相對賃金指數는 1972~76年 사이에는 조금씩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였으며, 中間水準의 賃金階層의 相對賃金指數는 1972~76年 사이에는 下向趨勢를 보이다가 그 이후 조금씩 개선되었다.

셋째, 1972~76年 사이에 職種間, 學歷間, 性別 賃金隔差가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賃金分布가 큰 變化를 보이지 않았던 것은 同期間 중에 同種學歷內, 同種職種內 勤勞者 사이의 賃金分散度가 뚜렷하게 축소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同種勤勞者들 사이에서 賃金分散度가 축소되는 현상은 1976年 이후에도 지속되어 왔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勤勞市場에서 賃金 등에 관한 市場情報流通이 원활해지고 企業의 賃金管理方式이 보다 定型化해 가는 데 연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네째, 1976~80年 사이에 賃金分散度가 축소된 요인으로는 進學率上昇으로 인한 低學歷 年少勞動力의 상대적인 供給減少, 同期間 중의 海外建設景氣, 전반적인 景氣好況으로 인한 男子技能人力の 부분적인 不足現象, 勤勞

者의 平均學歷의 증가와 勤勞者 간의 學歷分布縮小 등의 勤勞市場의 構造變化를 들 수 있다.

다섯째, 低賃金勤勞者를 대상으로 추진되어 왔던 低賃解消施策은 低賃金勤勞者의 相對的 位置를 상승시키는 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同施策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1974~76年 사이에 있어 最下位 賃金階層의 相對賃金水準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0~82年 사이에 最下位 賃金階層의 相對賃金指數는 31.5에서 31.2로 오히려 하락한 결과를 보여 同期間 중 인플레이 하에서 주요 賃金施策의 하나로 강조되었던 下厚上薄式 賃金調整이 실제로는 低賃勤勞者의 위치를 개선하는 데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위에서 살펴 본 分析結果에서 얻어질 수 있는 政策課題를 생각해 보자. 1970年代 中盤부터 賃金分散度가 눈에 띄게 축소되어 왔다는 점에서 일면으로는 政府가 賃金隔差를 축소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을 찾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賃金分散度の 축소 추세는 1980年代에 들어서서 일단 멈추었고 우리나라의 賃金分布의 폭이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나 社會的 通念上 매우 크다는 점에서 볼 때는 이와는 다른 정책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1982년의 경우 常傭勤勞者 중에서 「最高十分位の 賃金水準은 最低十分位の 賃金水準의 9배에 가까운 것으로, 이와」같이 「큰 폭의 賃金分布는 企業內部에서의 「원활한 勞使關係造成을 위해서나 社會 전반적인 共同體意識의 涵養을 위해서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앞으로 몇 년 동안 低學歷 年少勞動力의 공급이 계속 감소하고 大卒者의 공급이 大學定員 확대를 통해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賃金分布의 폭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年少勞動力이 婦人勞動力으로 代替될 가능성이 높고 전반적으로 1970年代와 같은 好景氣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나 또한 1980年代에는 經濟構造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成長에 대한 雇傭吸收度가 점차 낮아진다는 점에서 볼 때에는 勞動市場의 構造的變化에 의해 賃金分布의 폭이 자동적으로 바

람직한 수준까지 개선될 수는 없다. 따라서 政府는 賃金隔差의 완화, 低賃金勤勞者의 賃金改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外國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賃金隔差의 완화는 勞動組合의 세력 확장, 最低賃金制 등의 法的措置에 의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現段階에서 勞動組合의 交渉力強化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구하여야 할 政策目標임에 반하여 最低賃金制의 도입은 단기간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 參 考 文 獻 ◁

- 經濟企劃院, 『人口 및 住宅 센서스』, 1980.
- \_\_\_\_\_, 『總事業體 統計調查報告書』, 1981.
- 勞動部, 『事業體 勞動實態 調查報告書』, 1980.
- \_\_\_\_\_, 『職種別 賃金實態 調查報告書』, 各年度.
- 朴世逸, 「高等教育 擴大가 勞動市場에 미치는 影響(Ⅱ)」, 『韓國開發研究』, 第5卷 第1號, 韓國開發研究院, 1983.
- 朴烜求, 「農家人口 및 農家就業構造의 變化」, 『韓國開發研究』, 第4卷 第3號, 韓國開發研究院, 1982.
- 朱鶴中,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研究院, 1979.
- \_\_\_\_\_,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下)』, 韓國開發研究院, 1982.
- 朱鶴中·尹珠賢, 「1982年 階層別 所得分配의 推計와 變動要因」, 『韓國開發研究』, 第6卷 第1號, 韓國開發研究院, 1984.
- Adelman, Irma and Cynthia Morris, *Economic Growth and Social Equity in Developing Countries*,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1973.
- Chiswick, Barry and Jacob Mincer, "Time Series Changes in Personal Income Inequality in the U.S. from 1939 with Projections to 1985",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May/June 1972.
- Lee, Joung-woo, *Economic Development and Wage Inequality in South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83.
- Lydall, Harold B., *The Structure of Earning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68.
- Szal Richard and Sherman Robinson, "Measuring Income Inequality" in C.R. Frank, Jr. and R.C. Webb(ed.),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in the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77.
- Yoshioka, Shinichi, "A Study on Wage Distribution in Korea and Japan", *The Developing Economies*, March 1978.